

대설·한파 속 귀경 복새통...하늘·바닷길 막혀 '발동동'

광주공항 무더기 결항·전남 여객선 52개 항로 81척 운항 통제 송정역·버스터미널 북적...최대 20cm 눈에 오늘 출근길도 비상

민족 대명절인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4일 광주 송정역과 유스퀘어 종합버스터미널은 연휴를 보내고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는 귀경객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코로나19로 인해 3년만에 눈치 보지 않고 모든 가족이 모일 수 있었던 터라 올 설 고향을 방문한 지역민들의 얼굴은 시종 밝았다.

하지만 최강한파와 많은 눈으로 빗길과 하늘길이 막혀 일부 지역민들은 귀경편을 다시 알아보느라 발을 동동 구르기도 했다.

◇4일 연휴가 하루처럼 느껴졌어요= 올 들어 최강 한파를 맞은 설 연휴 마지막 날 고향 집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귀경객들의 모습은 유달리 춥게 느껴졌다.

이날 광주 송정역과 유스퀘어버스터미널에는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추위에도 명절 음식과 선물 등을 한아름 싸 들고 귀경길에 오르는 이들로 발 디딜 틈 없었다.

이들은 오랜만에 가족과 만난 반가움도 잠시, 금세 명절 연휴가 지나가버렸다며 아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곧 열차에 오른다. 건강하게 잘 계신다"며 전화를 붙들고 안부를 전하는 청년도, "도착하면 연락하라"며 딸을 버스에 태워보내는 아버지도 말과는 달리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유스퀘어 종합버스터미널에서 만난 박혜령(여·26·서울 종로구)씨는 어머니 양현경(55·광주시 서구 화정동)씨 집에서 설 연휴를 지냈다. 지난해 서울에 취업한 뒤 처음으로 맞은 설, 박씨는 오랜만에 가족들과 차를 타고 신안 바닷가 여행을 다녀왔다며 아직도 여행의 흥분이 가시질 않는다고 했다.

박씨는 "올 추석에 다시 광주를 찾아 근사한 여행을 할 것"이라며 "다음번에는 마스크를 벗고, 코로

나19 걱정 없이 가족들과 함께 먼 곳까지 여행을 떠나보고 싶다"고 말했다.

김선례(여·70대·경기도 용인시)씨도 명절 연휴 동안 자녀들을 보며 들었던 마음을 애써 가라앉히고 버스에 올랐다. 김씨는 흑시나 아쉬운 마음이 커질까 봐 자녀들의 귀경길 배웅도 마다하고 억척스럽게 홀로 버스터미널을 찾았다.

김씨는 "자식을 넷이 광주에 있는 딸이 집으로 오랜만에 모였는데, 웅기증기 모여 명절을 보내니 그렇게 좋더라"며 "몇 달 뒤 제사 때나 다시 모일 수 있을텐데, 어떻게 기다릴지 벌써부터 애가 탄다"고 웃었다.

같은 시각 광주 송정역도 연휴를 마무리하며 서로를 떠나 보내기 아쉬워하는 가족들로 북적였다.

양손 가득 반찬 통을 들고 열차를 기다리던 김호진(35·서울시 노원구)씨는 마중 나온 노부모에게 연신 "날도 추운데 얼른 들어가라"며 손짓했다. 추석 이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았다는 김씨는 연휴가 시작되기도 전인 20일부터 광주를 찾았다고 했다.

김씨는 "어머니가 난방비를 아끼겠다고 한파에도 전기장판만 틀어놓곤 하시는데, 아들 왔다고 온 집안을 여름처럼 데워놨더라"며 "최근들어 어머니의 건강이 안좋아지는 게 느껴져 마음처럼 쉽게 열차에 오르질 못하겠다"고 눈물을 글썽였다.

역 귀성길에 나섰다 되돌아 가는 이도 있었다. 임옥(여·66·경기도 광명시)씨는 광주에서 혼자 살고 있던 딸이 다리를 다쳐 지난 21일 한달음에 광주를 찾아왔다. 임씨는 "광주에서 더 머물면서 밥도 챙겨주고 병간호를 해주고 싶은데 아쉬운 마음 뿐이다"며 무거운 발걸음을 땀다.

◇곳은 날씨 때문에 발동동= 공항과 여객선 터미널에서는 지난 23일 새벽부터 쏟아진 눈으로 대설·



분주한 제설작업 광주·전남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24일 화순군청 소속 제설차량이 화순군 신너릿재터널 입구에서 연화칼슘을 뿌리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풍랑 특보가 내려지면서 항공편과 배편이 잇따라 결항돼 귀경길에 오르지 못한 사례가 잇따랐다.

24일 목포·여수·완도·고흥 등 여객선 터미널은 52개 항로 여객선 81척이 통제됐으며, 광주공항은 제주·서울·김포를 오가는 항공기 31편이 모두 결항됐다. 여수공항 또한 제주·서울·김포를 오가는 항공기 14편이 모두 결항했다.

연휴를 맞아 고향집 제주에서 광주를 찾는 정건우(43)씨는 갑작스러운 항공편 결항에 광주공항에 발이 묶였다. 광주공항에서 24일 오후 2시 40분 제주행 항공편에 탑승해야 하는데 이날 오전에서야

결항 소식을 접한 것이다.

정씨는 "대기표라도 뺐을 수 있을까 싶어 공항에 왔지만 결항 안내판만 걸려있을 뿐 도움을 주는 직원도 없어 그저 발만 동동 굴렀다"며 "당장 25일부터 출근해야 하는데, 항공편이 27일 오후까지 몽땅 매진돼 어찌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중호(58)씨도 광주공항 의자에 앉아 연신 항공기 운항 현황판을 바라보고 있었다. 박씨는 "연휴 기간 고향인 전북 익산을 들렀다가 제주도 돌아가려고 광주공항을 찾았는데, 전광판에 '결항'이 찍 써져있는걸 보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

다"며 "제주에서 아내 혼자 일을 하고 있어서 빨리 가서 일손을 도와야 하는데 큰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눈이 온다는 일기예보를 봤었는데, 연휴다 보니 집에 하루라도 더 있고 싶어서 연휴 마지막 날에 항공편을 예매한 제 실수다"며 고개를 떨궜다.

25일 오전까지 광주·전남에 최대 20cm의 눈이 내리고,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고되면서 귀경객들 뿐 아니라 지역민들도 연휴 뒤 출근길 걱정을 하고 있다.

/유연제 기자 yjyou@kwangju.co.kr
/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광주·전남 설 연휴 안타까운 사망사고 잇따라

광주 정신질환 아들이 모친 살해 나주선 오토바이 도랑 빠져 숨겨 강진선 축사에 일하러 갔다 참변

연중 어느 때보다 즐거워야 할 설 연휴 기간 광주·전남에서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잇따랐다.

광주북부경찰청은 설 연휴 첫날인 21일 새벽 1시께 광주시 북구 용두동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어머니 B(65)씨를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인)로 아들 A(44)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정신질환으로 약물 치료를 받아온 A씨는 B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특별한 직업없이 간병인 일을 하는 어머니와 단둘이 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친동생이 어머니가 전화를 받지 않자 오후 7시께 집을 방문해 숨진 어머니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 "어머니가 악마로 보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날 오후 4시 50분께에는 강진군 마량면에서 소 축사에 일하러 나갔던 C(64)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C씨는 고향집을 찾은 아들에게 '잠시 기다리라'는 말을 남기고 일을 나섰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스키드로더를 사용해 경사진 길에서 수로를 만드는 작업을 하던 중, 스키드로더가 흙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앞으로 뒤집히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오후 4시께 나주시 공산면의 한 도로에서 4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D(여·87)씨가 도랑

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D씨가 지인을 만나고 귀가하던 중 커브 길을 돌다 도랑에 빠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둔 20일 오전 10시께 진도군 임회면의 돼지 축사에서 황화수소 중독으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고도 발생했다.

농장 주인 E(41)씨가 돼지 출하 통로에 설치된 분노 배관을 수리하던 중 황화수소 중독으로 쓰러졌고, E씨를 구조하기 위해 통로에 들어간 직원 F(38)씨와 태국인 노동자 G(24)씨도 황화수소 중독으로 쓰러진 것으로 확인됐다.

3명 모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E씨는 숨졌고, F씨와 G씨는 치료를 받고 있다. 해당 통로는 창문이 모두 닫힌 밀폐된 공간으로 사고 당시 3명 모두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영장 벗어난 검찰 압수·별건 수사 위협

어업 단속기밀 누설 무죄 광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태호)는 공무상 비밀누설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공무원 A(62)씨와 B(6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8년 9월 사이 지인 등에게 15차례에 걸쳐 국가 어업지도선의 위치, 단속 현황 등을 문자로 알려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와 75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2015년 7월 A씨와 같은 명목으로 선장에게 1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18년 9월 A씨가 저인망어선 선장 C씨에게 뇌물 2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1차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지만 압수한 A씨의 휴대전화에선 선장 C씨의 혐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

하지만 다른 SNS 대화내용에서 해당 뇌물수수의혹과 무관한 다른 범죄 의혹(공무상 비밀누설·금품 수수)을 발견한 검찰은 A씨를 소환해 1차 영장 집행 내용(C씨로부터 뇌물수수)과 무관한 어업지도선 단속 정보 유출 또는 금품·향응 수수 관련 범죄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이에 대해 '이 건(C씨 사건)과 관계 없는 데 물어보지 마셔야지' 등의 답변을 하면서 이의를 제기했지만, 검찰은 2018년 10월 뇌물 공여자로 보이는 2명의 휴대전화·통장·카드에 대한 2차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뒤 증거를 제출했다.

1·2심 재판부는 '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고 압수 정보의 상세 목록을 전달해야 하는 원칙과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이와 같은 수사 관행은 피 압수자의 수사과정 참여권을 가지 없게 만든다는 점,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진술거부권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점 등 수사기관의 위법성이 상당히 중하다"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h3>전원주택 (1채) → 7,000만</h3> <p>(토지 분양 중) 장성담 5분, 광주 20분, (6M도로 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세컨하우스 ② 소형 주택 ③ 전기,수도,배수 완비 ④ 주말 하우스 최고 ⑤ 잔디,나무,일체 포함 <p>★ 토지분양 → 전원주택 토지 (100평, 150평, 200평)</p>	<h3>상가매매(상무지구)</h3> <p>(매매, 임대) 권리금 없음</p> <p>▶ 중심 상업지구 (유형 적합)</p> <p>(6층, 7층) = 140평</p> <p>시세 → 10억</p> <p>➔ 급매 7억</p> <p>보3천 월 380만 (용 4억5천)</p>	<h3>경매교육 [특수 전문반 기초반, 중급반]</h3> <p>* 특수 전문반 모집 (10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 2) 중급반 (실전부터 ~) 3)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 4) 투자반 (투자가능한분) <p>▶ 경매 물건 추천 ◀</p>
<p>010-6670-9800</p>	<p>010-2614-9801</p>	<p>광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구 두암동 (상가주택) ▶ 감평가 3억9천 → 최저가 2억7천 광산구 하남동 (근린상가) ▶ 감평가 62억 → 최저가 35억 서구 화정동 (주택) ▶ 감평가 1억9천만 → 최저가 1억2천 광산구 박호동 (주택) ▶ 감평가 4억4천 → 최저가 3억 광산구 하남동 (공장) ▶ 감평가 36억 → 최저가 16억 장성 동화면 (과수원) ▶ 감평가 8억2천 → 최저가 5억7천 나주 빛가람동 (식자재마트) ▶ 감평가 54억 → 최저가 30억 김제시 하동 (아파트 293세대) ▶ 감평가 130억 → 최저가 65억